

# ‘지방향토’에서 ‘일본정신’으로\*

— 전쟁기(1937-1945) 대만의 문화동원논리

崔末順\*\*

## <목 차>

1. 식민지 대만과 문화담론
2. 중일전쟁기(1937-1940)의 대만문화 역할론
3. 태평양전쟁기(1941-1945) 문화담론의 일본중심주의
4. 대만문인의 대응과 사고

## 1. 식민지 대만과 문화담론

이 글의 주요 내용은 1937년 중일전쟁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 식민지 대만에서 형성된 문화담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 동기는 정치 권력이 특정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 문학을 포함한 문화 전반을 통제하고 규정하며 동원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일제 말 전쟁기 대만문(논)단을 형성했던 언론매체와 문학잡지에 실린 문화관련 문장을 대상으로 문학예술을 포함한 식민지 대만의 문화담론이 전쟁과 시국의 추이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고찰하기로 한다.<sup>1)</sup>

문화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본문에서는 식민지시기 대만의 언론매체에서 언급된 문학을 포함한 문화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반세기에 달하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3033890).

\*\* 臺灣 國立政治大學 臺灣文學研究所 副教授(mschoi@nccu.edu.tw).

1) 지금까지 일제 말 전쟁시기 대만에서의 문화동원은 사료를 중심으로 전환의 추이와 동원 논리와의 상관성을 추적하기보다는 주로 황민화운동의 범위에서 강제된 측면이 언급되었다.

는 대만의 식민지시기를 개관할 때 시기와 주체에 따라 문화에 대한 담론이 달라졌음은 자명한 일이다. 가령 1920년대 계몽시기에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개념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이전에는 없었던,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일종의 서구 근대적 지향을 포함하는 문명 상태나 정신적 가치를 일컫는 것이었고, 1930년대에는 동화주의 식민정책과 급속한 자본주의화, 근대화에 맞서 전통적이고 민속적인 민간문화가 강조되기도 했으며, 1937년 이후에는 주로 전쟁 수행과 관련한 문화담론이 생산, 유포되었다. 이렇듯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때 앞 두 시기의 문화담론은 대만인(본도인) 지식인들이 주도한 것이었다면 일제 말 전쟁기에는 총독부를 위시한 관방, 혹은 재대만일본인들에 의해 구축되고 강요되었다는 점에서 문화담론의 목적과 성격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본문의 목적이 전쟁기 문화담론을 고찰하는 데 있으므로 앞선 두 시기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비교해 보기 위해 우선 1920-30년대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920년대는 ‘근대적 문화’가 중요한 시대의 담론으로 부상했다. 당시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된 지 25년이 지난 시점으로 비록 자주적인 근대화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성립, 교통과 통신망의 구비 등 자본주의 근대의 물질적인 기초를 갖춘 단일한 정치, 경제공동체가 형성된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근대 교육 시스템을 통해 탄생한 신흥지식인층이 새로운 인식들을 통해 시대와 세계, 민족의 처지를 사고하며 자각과 계몽의 시대를 이끌었다. 마침 大正民主(1912-1926)시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찾아 일본으로 유학 간 대만청년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국제연맹의 창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선언 및 이에 고조되어 일어난 한국의 3·1운동과 중국의 5·4 신문화운동을 마주하면서 세계정세에 대한 인식과 민족처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啓發會(1918), 響應會(1919), 新民會(1920) 등을 조직하여 문화계몽과 동시에 정치운동을 준비했다.

이들의 시대인식은 新民會의 기관지 《臺灣青年》 창간사와 이들 조직에 참여했던 李漢如, 林慈舟, 王敏川, 蔡培火, 蔡鐵生 등 많은 지식인의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새로운 문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약육강식의 식민지 쟁탈전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때 인류는 횡포로부터 정의의 길로 나아갈 것이며 이기적, 배타적, 독존적인 야수생활을 배척하고 공존적, 희생적, 양보하는 문화운동을 모색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민족자결이 존중받고 남녀가 동등하며, 노사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평화적이고 이성적이며 민생을 도모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 해방이 가능해졌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문화를 수단으로 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2)</sup> 여기서 문화란 유럽의 제국주의 팽창을 가능케 했던 물질적, 군사적 근대문명이 아니라 정신적, 평화적 정신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논리를 비판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는 식민당국이 주입하고 전파한 전면적인 근대지향과 부국강병의 문명담론과는 다른 것이며<sup>3)</sup> 도리어 각종 신기술과 신학문이 무기의 생산과 전쟁으로 치달아 세계평화를 해치고 타민족을 압박하며 나아가 개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원인이라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문명과 야만이라는 유럽과 근대중심의 대립적 인식을 전도한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과학지식과 신관념을 수용하여 반봉건과 사회변혁을 지향한 점에서는 강력한 근대문명 지향을 보여주지만 그 문명이 침략적, 파괴적으로 이용되어 전쟁이란 극단적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강렬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었다.

나아가 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이끌 평화적, 이성적 정신문화를 대만의 식민지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변혁을 도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내세웠다. 새로운 문화상대에서는 지식의 유무, 신분과 계급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동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대만이 그렇지 못

2) 1920년대 초기의 정치운동과 문화운동의 성격은 崔末順, <“五四”與臺灣新文學以及“朝鮮”-從《臺灣民報》兩篇小說談起>, 《한중언어문화연구》 제57호(한국중국어언어문화연구회, 2020), 91-116쪽 참고.

3) 1920년대 이전의 문명담론에 대해서는 黃美娥, 《雙層現代性鏡像》(臺北: 麥田出版社, 2004) 참고.

한 것은 식민당국의 愚民政策과 六三特別法<sup>4)</sup>이 지탱하는 專制政治 때문이므로 문화의 振作을 통해 대만민의 자각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문화담론의 주요 내용인 민족자결과 인권존중 정신에 입각하여 六三法撤廢運動과 臺灣議會設置請願運動 등 정치운동<sup>5)</sup>을 추진했고 민족 고유성을 말살하는 同化主義政策을 비판했으며 아울러 臺灣文化協會를 조직하여 민중을 대상으로 신문화계몽운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인식과 실천은 1923년에 창간된 《臺灣民報》에서 지속되었는데 이 잡지는 백화문을 채용하여 계몽의 의도를 더욱 강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漢(文)學의 부흥을 주장으로써 동화정책과 일어 교육에 대항하였고 무엇보다 신문학운동의 산실이 되어 문자개혁주장, 신문학논쟁, 근대문학창작 등이 이 지면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대만의 근대 초기 문단은 이성과 평화, 해방을 지향하는 문화담론의 문학적 실천장으로 형성된 것이며 정치적 의견개진이 제한을 받았던 식민지 처지에서 문화계몽을 통한 정치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1920년대 계몽시기에 언급된 문화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척도로 이 시기 담론의 특권적 영역으로 부상했다. 또한 이런 연유로 하여 민족 고유성과 민간전통, 일본과 구분되는 대만의 향토적 특질은 봉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부정되지 않고 식민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대항적 문화담론으로 거론되기도 했다.<sup>6)</sup>

그러나 식민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른 대만사회의 급속한 계급분화와 모순의 심화로 인해 계몽운동의 주체였던 臺灣文化協會는 1927년 좌우로 분열되었고

4) 1896년 제정된 육삼법은 대만총독에게 울령제정권을 부여한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행정, 군사, 입법권이 총독에게 집중되어 전제정치의 근거가 되었다. 그 목표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행정 권력에 기초하여 고압적인 통치질서 건립으로 일본제국의 세력을 확장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었으며 대만민의 기본권리를 임의로 박탈할 수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

5) 六三法撤廢運動과 臺灣議會設置請願運動 등 일제시기 대만의 정치운동에 대해서는 최말순, <식민지 자치론과 葉榮鐘의 조선행>, 《식민과 냉전하의 대만문학》(서울: 글누림출판사, 2019), 69-100쪽 참고.

6) 초기 잡지에 드러나는 중국전통과 사상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崔末順, <新文學의啓蒙內容及其結構：五四與臺灣新文學運動中的文學論比較>, 《五四精神在東亞的發展與變遷暨跨文化研究》(花蓮: 慈濟大學東方語文學系, 2017), 97-132쪽 참고.

좌익진영에 의해 해방이란 급진적 방식으로 계급과 민족의 중첩된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정치운동이 전개되었으나 1929년과 1931년 두 차례에 걸쳐 식민당국의 대대적인 진압으로 완전히 봉쇄되었다. 이에 좌익경향의 지식인들은 문단으로 집결하여 식민경찰의 횡포, 제당회사의 토지수탈, 농촌과 농민의 빈궁, 노동자의 현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판적 문학창작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 문화계몽운동은 좌익문학운동으로 변모하였고 계몽의 대상이 무산대중과 노동자, 농민계층으로 집약되면서 문예대화논의가 1930년대 대만문단의 주요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대중들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로 그들의 생활과 경험을 창작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어 鄉土文學/臺灣話文論爭<sup>7)</sup>으로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민간문학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지목되어 민간문학 수집과 연구 풍조가 문단에 확산되었다. 좌익문단에서는 민간문학이 가진 민중의 생활내용과 무산대중의 언어인 대만화문의 보고로써 중시되었고 우익문인들에게도 민족의 고유한 생활 모습과 전통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져 주목을 받았다. 이렇듯 민간문학의 수집과 토론으로 고조된 전통열풍은 참여한 문인 개인의 계급적, 사상적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수용되었다.<sup>8)</sup> 1930년대 중반까지 민간문학의 수집이 진행되고 그 이용 방향이 논의되면서 대만의 민족적 전통과 고유한 생활습관은 이 시기 문화담론의 주요 내용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식민당국이 주도하는 근대화의 물결 아래 소실되어 가는 조상의 지혜와 전통을 보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강력한 동화주의에 대항하는 논리로써 민간문학과 민간문화가 강조된 것이었다.<sup>9)</sup>

한편 193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근대이성에 대한 반성의 분위기와 함께 동

7) 최말순, <1930년대 대만문단의 향토문학/대만화문논쟁의 쟁점과 성과>, 《식민과 냉전하의 대만문학》, 위의 책, 101-129쪽 참고.

8) 崔末順, <現代性與臺灣文學的發展(1920-1949)> (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系 博士論文, 2004), 135-181쪽 참고.

9) 1930년대 대만문단의 민간문학 수집과 정리에 대해서는 王美惠, <1930年代台灣新文學作家的民間文學理念與實踐——以“臺灣民間文學集”爲考察中心> (國立成功大學歷史研究所 博士論文, 2008) 참고.

양의 전통이 서구 근대를 극복하고 견제하는 의미로써 중시되는 경향이 생겨났다. 특히 일본에서는 좌익문학의 쇠퇴와 함께 전통문화에 대한 탐구가 문단의 의제가 되었고 이러한 풍조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대만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대만 지식인 단체인 臺灣藝術研究會의 성원이자 시인으로 활동하던 王白淵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아래서 인도시성 타고르와 평화주의자 간디를 찬양하면서 서구 근대의 이성주의와 과학 문명에 대한 회의를 표명하고 동방문화와 정신에 대해 언급했다.<sup>10)</sup> 마치 1920년대 초기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대만 지식인들이 제기한 동서양 사상의 대립적 인식을 연상시키는데, 말하자면 이성, 지식, 물질, 기계 등 서양문명과 감각, 정신, 생명, 자연 등 가치를 중시하는 동양의 인도적이며 자연 친화적인 문명을 대립시켜 동양의 우월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근거로 유럽 문명을 받아들이는 일본의 대만 지배를 비판하고 있다. 계몽 시기의 문화담론과 차이가 있다면 인권, 평화, 평등 같은 보편적 가치보다 동양의 전통과 문화로 경사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1920-30년대 대만지식인의 문화담론은 1930년대 후반 전쟁체제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이후 계속된 전장의 확대는 내지와 외지/식민지를 포괄하여 사회 전 부문을 동원하는 총력전을 요구하게 되었고 문화부문 역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본문은 이점에 주목하여 편의상 중일전쟁기(1937-1940)와 태평양전쟁기(1941-1945)로 나누어 문화를 둘러싼 식민 권력의 동원논리와 전쟁 추이에 따른 문화담론의 변모 및 이에 대응하는 대만 지식인의 논리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이전 시기 문화담론이 전쟁 수행으로 인해 어떻게 변용되고 전유되는지, 식민정치권력이 문학예술을 포함한 식민지 문화전반을 어떻게 지배해 나갔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10) 柳書琴, 《荊棘之道——臺灣旅日青年的文學活動與文化抗爭》(臺北: 聯經, 2009), 108-115쪽 참고.

## 2. 중일전쟁기(1937-1940)의 대만문화 역할론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반세기에 이르는 식민지배 기간 동안 제국 일본과 식민지 대만의 관계가 가장 긴밀하게 연동된 시기는 일본이 1937년 7월 蘆溝橋발포사건을 일으켜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을 감행하고 일련의 군사적 팽창을 시도한 이후일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은 근대국가로의 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내부적 긴장을 주변 지역에 대한 침략으로 해소해 왔다. 1929년의 경제 대공황과 자본주의 위기 역시 만주사변(1931)이란 군사행동을 통한 경제블록의 구축으로 해결하고자 했고<sup>11)</sup> 그 연장선에서 엔화의 日滿支블록 구축을 위한 군사행동이 중국에 대한 전면전으로 이어진 것이다. 경제블록화에 대한 주장은 강력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블록화 논의와 함께 국가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 강조되었다. 중일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들어선 제1차 고노에(近衛文麿) 내각은 기존의 준전시체제에 이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고도국방국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시작했다. 국가가 물자통제와 인원징용, 언론제한의 전권을 장악하는 전시동원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이어 발표된 동아신질서 성명(1938.11)은 중일전쟁의 후방논리로 전쟁의 목적을 ‘동아신질서의 건설’<sup>12)</sup>에 두고 日滿支의 공동방공, 경제적 결합, 선린우호를 표방했다. 또한 興亞院 관제를 공포하고 원활한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시아 담론을 제기했다. 중국을 침략한 행위를 동아시아에서의 신질서 형성을 위한 전쟁으로 규정했고 그 신질서가 구현될 구성체를 ‘동아협동체’로 명명했다. 이러한 전시 분위기에서 일본의 정치학자들은

11) 일본에서는 1930년대 초부터 다양한 지식인들에 의해 경제 블록화에 대한 구상이 제기되었다. 歐美의 경제 블록화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 중심의 경제적 자급자족 엔(円)블록 경제권을 구축하자는 주장이었다.

12) ‘동아신질서의 건설’이라는 전쟁목적의 이념화와 그 구체화의 구상은 정권담당자 고노에를 뒷받침한 정치집단인 昭和研究會 지식인들에 의해 제출된 것이었다. 그 지식인이란 정치학자 蠟山政道(1895-1980), 철학자 三木清(1897-1945) 등을 말한다.

동아협동체 구상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영미중심 세계질서의 재편이라는 정치과정 속에 위치시켰고, 철학자들은 유럽중심적 세계사의 전환이라는 역사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했으며 문학자들도 곧이어 ‘근대의 초극’ 담론에 적극 동참했다.<sup>13)</sup> 이로써 중국침략의 목적을 위해 제기한 지정학적 개념인 ‘동아’는 이후 전쟁의 확대에 따라 ‘대동아’로 확장되었으며 일본이 일으킨 전쟁지역을 재구성하는 핵심적인 개념어로 기능했다.<sup>14)</sup>

이렇게 전쟁 합리성에 의해 진행된 일본 내 체제변화와 전쟁수행을 위해 개발된 ‘동아’의 논리는 동보적으로 식민지 대만에 영향을 미쳤고 이제 제국과 식민지는 일체가 되어 동시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중일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臺灣總督府에 臨時情報委員會<sup>15)</sup>가 부설되고 군사령부에 의해 전시체제가 선포되었으며 일본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같은 이름의 전시동원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총독부가 주도하는 사상 선전과 정신동원이 시작되었다. 동아신질서 건설이란 중국침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식민지 대만에 요구된 것은 ‘중일간의 교량 역할’이었다. 중국과 同文同種이란 조건으로 인해 이 담론은 식민지 초기부터 거론되어 왔지만<sup>16)</sup> 이 시기에는 대만을 경유하여 중국을 향해 동아건설이란 전쟁목적을 전파하는 데 중점이 있었다. 즉 중일전쟁기의 대만은 한편으로는 총독인 고바야시(小林躋造)가 내세운 동화주의의 강화 버전인 황민화운동의 대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일간의 중개자 역할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전쟁발발을 전후해 신문잡지의 漢文欄이 폐지되고 대만인의 문단 활동이 중지됨과 동시에 한문잡지인 《風月報》가 창간된 사정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sup>17)</sup> 이런 논리 하에서 문학예술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문화의 역할

13) 崔末順, <日據末期臺韓文壇의“東洋”論述——“近代超克論”의殖民地接受樣貌>, 《海島與半島——日據臺韓文學比較》(臺北: 聯經, 2013), 373-406쪽 참고.

14) 고야스 노부쿠니, <일본지식인과 중국문제>, 《일본비평》 제6호(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2), 152-165쪽 참고.

15) 중일전쟁이 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5만여 명의 대만인이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운동에 참여하는 등 민심의 동요가 있자 대만인의 사상통제를 위해 설립한 총독부 산하기구로 1937년 8월 臨時情報部로 개편되었다.

16) 1920년대 초기의 잡지 《臺灣青年》과 《臺灣》에는 일본인뿐 아니라 대만인들이 쓴 문장에서 중일 친선과 교량 역할이 대만의 임무라는 문장이 여러 편 있다.

이 주요쟁점으로 부상했다.

대만의 문학/문화의 역할이 국책으로써 요구되면서 전쟁발발을 전후하여 재대만일본인들에 의해 제기된 소위 外地文學 주장에 정치색이 더해지기 시작했다. 흔히 1930년대 중후반의 대만문단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운위되는 것이 시인 니시가와 미쓰루(西川滿)와 타이베이제국대학 비교문학연구자 시마다 겐지(島田謹二)가 제기한 南方文學과 外地文學일 것이다. 이들 재대만일본인의 주장은 대만지역의 독특한 향토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반영하여 일본 중앙문단과는 다른 대만 스타일을 창조하자는 것이었다. 전형적인 지방주의문학 주장으로 볼 수 있는데 당시 일본의 南進政策, 南方文化建設 요구와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외지문학의 건설을 주장한 島田謹二은 중일전쟁의 발발을 전후하여 여러 잡지에 <南島文學志>를 신고<sup>17)</sup> 대만문학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sup>18)</sup> 그에 의하면 ‘대만문학’이란 바로 ‘대만에서 발생한 문학’, ‘대만과 관련 있는 문학’이며 ‘대만’이란 땅을 공동의 요소로 가지고 있는 문학작품을 말한다. 그가 예로 든 대만문학은 국부적으로 대만을 점령했던 네덜란드, 스페인의 문학 중에서 대만을 그린 작품, 明清시기의 古典詩文과 民間文學을 포함한 支那文學 그리고 일본문학 중 대만을 그린 작품이며, 1920년대 이래 식민지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려낸 대만인의 신문학은 외지문학, 지방문학으로서의 대만문학 범주에 넣지 않았다. 屬地主義에 속하는 이 견해는 일본의 한 지방문학으로 대만문학을 편입시키고 있으며 漢族의 문학은 “대부분 문학적 가치가 너무 낮아서 우리같이 복잡하고 정밀하며 깊이 있고 웅장한 근대문학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근대미학의 관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고도의 미학적 가치’를 지닌 ‘예술의 한 분야이며 고도로 발전한 문학 양식’을 갖춘 외지문학을 지향했는데 이 기준에 의해

17) 《風月報》의 연혁과 그 후속잡지 《南方》의 국책협력에 대해서는 최말순, <종족지와 전쟁동원 — 일제말 전쟁기 대만의 남방담론>, 《식민과 냉전하의 대만문학》, 위의 책, 239-261쪽 참고.

18) 《臺大文學》 1:5(1936.10.10.); 《臺灣時報》 218(1938.1.1.).

19) 이와 관련된 문장으로는 <明治時代內地文學中的臺灣>, 《臺大文學》 4:1(1939.4.9.); <外地文學研究的現狀>, 《文藝臺灣》 1:1(1940.1.1.)가 있다.

일본 작가 사토 하루오(佐藤春夫)의 <女誠扇綺譚><sup>20)</sup>과 西川滿의 詩作이 충만한 낭만성과 풍부한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sup>21)</sup>

島田謹二에 의해 색채 등 시각적 요소와 충만한 감각적 성분으로 외지문학의 가치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문학사로 진입하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西川滿은 대만의 종교 신앙, 역사, 사찰과 古城, 식물과 동물, 각종 祭典 등을 소재로 한 여러 시를 통해 내지에는 없는 대만지방의 색채와 이국적 정조를 그려내었다. 島田謹二는 이들 시작에서 일본문학에서는 보기 드문 '明朗, 透明, 濃密, 鮮艷'한 특색을 볼 수 있고 '낭만적 환상적이며' '기이하고 신비적인 소재를 사용했지만 음침한 느낌이 없고 도리어 명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면서 이러한 '명랑한 신비'는 '고전주의 예술정신의 근대적 표현'이라고 극찬했다. 西川滿 자신의 예술과 문학에 대한 견해는 <예술이란 무엇인가><sup>22)</sup>에 나와 있는데, '자연계의 사물을 模寫한 것이 아니라 直觀으로 대자연을 觀照한 것으로 작가 자신의 直覺, 想像을 통한 形象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알 수 있는바 이들이 추구한 대만문학과 예술은 대만인이 주체가 되어 표현한 대만인의 생활이 아니며, 대만이란 지방의 향토색을 기반으로 구축한 지방주의문학으로 일본문학의 영역 안에서 논의한 것이고 평가의 미학적 기준은 풍부한 색채와 상상력으로 대만이란 소재를 표현한 환상적, 낭만적, 유풀미적인 풍격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지방주의문학을 표방하게 된 데는 프랑스문학 연구자이자 西川滿의 스승이기도 한 요시에 다가마쓰(吉江喬松)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알려져 있다.<sup>23)</sup>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외지문학 혹은

20) 佐藤春夫는 1920년 3개월의 대만방문 후 일련의 대만 관련 작품을 남겼는데 이 작품도 그중 하나이다. 그 내용은 臺南의 오래된 항구의 한 폐가에서 여자 귀신의 목소리를 듣게 된 서술자가 이를 기이하게 여기다가 한 할머니를 통해 집주인의 몰락과 그 딸의 기구한 사랑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것으로 폐가이기는 하나 호화로운 장식과 여귀의 목소리, 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사랑 등 환상적인 분위기가 잘 드러나 낭만적인 傳奇문학으로 알려져 있다.

21) 관련 문장으로는 <佐藤春夫의《女誠扇綺譚》——華麗島文學志>, 《臺灣時報》 237, (1939.9.1.); <西川滿의 詩業>, 《臺灣時報》 240(1939.12.19.)가 있다.

22) <何謂藝術>, 《臺灣警察時報》 275(1938.10.1.) 논문 중 사용한 자료는 黃英哲 編, 《日治時期台灣文藝評論集》 二—四冊(臺南: 國家台灣文學館籌備處, 2006)에서 인용한 것임. 이하는 원출처만 표시.

23) 橋本恭子에 따르면 이들은 吉江喬松의 영향으로 프랑스 지방문학인 프로방스문학과 비견되

남방문학은 문학 풍격과 경향에서 동경문단과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이 보이는 ‘대만의식’은 내지에 대한 대항의식이라기보다는 일본 국가주의에 수렴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1935년을 전후해 일본 국내에서는 南進論이 제기되어 정치,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대만을 남방문화개발의 근거지로 건설해야 한다는 구호가 등장했고 대만총독도 南進化를 통치방침의 하나로 내세웠다.<sup>24)</sup> 島田謹二가 대만의 독자적인 문학은 남방문화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이들 재대만일본인이 내세운 남방문학, 외지문학 논의는 남진의 열기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1937년 중국에 대한 전면전의 개시부터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중일전쟁기로 본다면, 이 시기 대만이 중일간의 교량 역할과 남진의 근거지로 인식되었던 만큼 문화의 지방색채와 남방문화로서의 특색이 특별히 강조되었다. 당시 ‘文藝時評’ 혹은 ‘臺灣文化界展望’등 제하의 문장에서 ‘남방의 특색, 남해의 문학, 대만을 중심으로 향토문예, 대만의 문예가 남방의 經典이 될 것이다.’<sup>25)</sup> ‘향토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대만문화를 진흥시킬 수 있다.’<sup>26)</sup>는 주장이 이어졌다. 그러나 향토성의 내용은 西川滿으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異國情調의 낭만적 경향에서 점차 대만에서의 생활체험을 중시하는 현실적 경향으로 옮겨갔다. 특히 1941년 張文環이 주도하여 창간한 《臺灣文學》잡지가 현실주의를 내세우면서 이 경향은 더 뚜렷해졌는데 그 이전부터 《文藝臺灣》에 동조했던 인사들조차도 점차 대만 현실의 묘사를 더 중시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시작은 島田謹二가 제기한 외지문학 개념의 재정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본 바 1936년을 전후하여 <南島文學志>에서 근대예술 미학에 입각하여 문학성과 예술성이 풍부한 대만 소재 문학연구의 필요성을

는 남방 특유의 분위기와 정조를 가진 대만문학(외지문학)을 건립하려고 한 것이며 이를 일본 중앙문단에 반대한 재대만일본인의 민족주의로 해석했다. 橋本恭子, <在臺日本人的郷土主義——島田謹二與西川滿の理念>, 吳佩珍 主編, 《中心到邊陲的重軌與分軌(中)》(臺北: 臺大出版中心, 2012), 333-379쪽.

24) 1939년 대만총독 小林躋造는 일본에서 기자들에게 황민화, 공업화, 남진화를 대만통치방침이라고 밝혔다.

25) 西川滿, <臺灣文藝界의展望>, 《臺灣時報》 230(1939.1.1.).

26) 堀越生, <文藝時評——協會運動與忘八>, 《臺灣時報》 237(1939.9.1.).

강조하던 데 비해 1940년 《文藝臺灣》 창간호에 발표한 <외지문학연구의 현재 상황>에서는 외지생활의 체험을 통해 그 사회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외지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비록 서구제국의 식민지 문학을 예로 들고 있지만 인상주의식의 구식 이국정취가 외지의 진상을 모르는 내지인에게 오락거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밀하고 세밀한 눈으로 외지의 진상을 그려낼 것을 주문했다.<sup>27)</sup> 이 문장은 臺灣詩人協會가 전쟁 시국에 맞추어 설립된 총독부 임시정보위원회의 지지와 협조를 받아 臺灣文藝家協會로 이름을 바꾸고 시전문지 《華麗島》를 확대 개편한 종합문예지 《文藝臺灣》의 창간호에 실린 것으로 당시 문단의 기조와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시국에 대한 문단의 대응이란 점에서 여러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외지문학의 개념이 내지문단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식민지문단의 구축이라는 처음의 목적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문학/문화의 역할이란 동원 논리로 옮겨갔음을 말해 준다.

이런 분위기에서 《文藝臺灣》의 동인이었던 楊雲萍은 淸朝시대 劉家謀의 시집 《海音》을 소개하면서 당시의 사회와 시대에 대한 정확한 반영, 기록,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대만의 경제, 풍속, 사회를 잘 알려주는 문학으로 지목하였다.<sup>28)</sup> 나아가 이노 가노리(伊能嘉矩)의 《臺灣文化志》<sup>29)</sup>에 기록된 인명 착오를 지적하는 등 대만의 역사기록에 대한 고증을 계속해 나갔다.<sup>30)</sup> 南明史 연구자이기도 한 그는 대만지역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는 시대적인 과제를 재대만일본인과는 달리 漢文學에서 찾았으며 그 풍부한 전통과 유구한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데서 출발하자는 입장을 보여 준 것이다.<sup>31)</sup>

張文環은 이 시기 강조된 대만문학이 시국과 연관된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

27) <外地文學研究的現狀>, 《文藝臺灣》 1:1(1940.1.1.).

28) <關於劉家謀之《海音》>, 《文藝臺灣》 1:2(1940.4.2.).

29) 《臺灣文化志》는 인류학자이며 대만원주민 연구자인 伊能嘉矩의 대표작으로 대만총독부 민정국에서 일할 당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1906년부터 19년을 들여 완성한 청조시기의 대만사 연구저작이다. 모두 3권 17편이며 1928년 출판되었다.

30) <楊浚非楊承藩>, 《文藝臺灣》 1:3(1940.4.2.).

31) <台灣文學的研究>, 《臺灣藝術》 1:3(1940.5.1.).

고 있었다. 그는 일본에서 향토문학을 시작으로 지방색채를 가진 문학을 추구하게 된 맥락이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지 혹은 지방문화로서의 대만문학은 興亞의 대업을 위해 문단을 확충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 풍격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환기의 이 현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고 했다. 다만 언어나 형식보다 내용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으로써 西川滿으로 대표되는 유려한 일어와 형식미를 중시했던 기존의 문학 견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sup>32)</sup>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이후 《臺灣文學》의 창간과 장편소설 《山茶花》의 《臺灣新民報》 연재를 통해 실천에 옮겨졌다.<sup>33)</sup> 徐璦二 역시 시국의 필요에 의해 문단이 소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報導文學이나 從軍作家의 등장을 들어 사변(중일전쟁)후 중앙문단에서 문학의 정치협조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국책동원에 대한 시비 여부를 떠나 대만문단의 재건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sup>34)</sup> 張文環과 같이 시국의 수요와 정책을 이용해 침체된 대만문단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들의 의견은 재대만일본인 작가들이 내놓은 전쟁협조를 위한 향토성 주장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文藝臺灣》의 주요동인으로 활동했던 龍瑛宗 역시 이 시기에 와서 문학이 사회현실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통속작가인 葉步月的 <結婚記念日>을 평가하는 문장에서 작가의 눈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을 비추어야 한다면 발자크, 고골리, 토스트에프스키 등을 들어 작품이란 사회와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만큼 문학과 예술은 인류와 사회의 관계 혹은 접촉을 탐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sup>35)</sup> 재대만일본인 작가인 나카무라 데쓰(中村哲)도 《文藝臺灣》에 기고한 <외지문학의 과제>라는 글에서 西川滿의 작품 경향을 비판하고 외지문학은 ‘외지 거주자가

32) <關於臺灣文學的將來>, 《臺灣藝術》 1:1(1940.3.4.).

33) 이 소설이 연재되자 본도인 작가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대만의 향토 현실을 통해 대만인의 情意을 알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藤野雄士, <關於張文環和《山茶花》의備忘錄>, 《臺灣藝術》 1:3(1940.5.1.).

34) <邁向臺灣文化之路>, 《臺灣藝術》 1:2(1940.4.1.).

35) <給想創作的朋友>, 《臺灣藝術》 1:3(1940.5.1.).

외지의 풍물, 기후와 인정 속에서 생활'하는 데서 출발해 외지에서 살아가는 실제 생활인의 눈과 귀, 몸으로 느끼는 것을 그려야 한다고 했다. 즉 진정한 외지문학은 외지인 제2세대 같은 외지생활자의 문학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外地人文學이라고 정의했는데 외지인의식으로 생활의 실제상황을 그리는 사실적 문학을 강조하고 있다. 그 예로 아쿠타가와상 수상작 중 외지의 이족 혼혈아의 심리를 그린 조선 작가 김사량의 소설이야말로 외지문학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김사량의 지성적 관점이 작품의 수준을 높인 최대공신이라고 하면서 이 소설에서 보이는 외지의 풍부한 소재, 즉 풍토, 기후, 산업의 문제 그리고 이족 간의 도덕, 애정, 습속, 심리, 인정 등 요소가 잘 활용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sup>36)</sup>

이렇듯 1936년을 전후해 西川滿과 島田謹二에 의해 제기된 남방문학, 외지문학 이름의 대만문학은 주로 대만이 가진 지역적 특색과 향토성을 풍부한 감각과 색채로 낭만적이고 유미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는데 비해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동아신질서 건립이란 전쟁 담론이 유포되면서 양국 간의 교량 역할을 부여받은 대만문학의 향토성 내용은 낭만적, 유미적인 대만 특유의 풍속이나 풍경에서 점차 사회생활의 사실적 반영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島田謹二의 외지문학 개념의 재정립이 그 신호탄으로 재대만일본인 위주의 《文藝臺灣》 동인들 역시 대만 사회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으며 유미적 이국정조로 대만을 그리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張文環 등 본도인 작가들도 문학이 현실의 문제점을 그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대만일본인들이 이족 간의 갈등이나 외지생활의 조건 등을 중시한 데 비해 본도인의 경우 사회의 낙후성이나 어떻게 문화를 제고시킬 수 있을지에 중점이 있었고, 그 목적도 전자가 대만 사회에 대한 이해를 전쟁 시국의 필요성에 직접 대입시킨 데 비해 후자는 시국의 필요성을 이용해 대만문단을 재건하고 문화향상을 꾀하자는 데 두었다. 이렇듯 중일전쟁기 대만문화담론과 전쟁 동원 논리는 문화의 지방색채와 대만문학의 향토성 건립을 통해 전쟁에 복

36) <外地文學의課題>, 《臺灣文藝》 1:5(1940.7.10.).

무하는 역할이었지만 본도인과 재대만일본인 각각 다른 목적과 이해를 가진 同床異夢의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 3. 태평양전쟁기(1941-1945) 문화담론의 일본중심주의

일본이 도발한 중일전쟁은 초기 거듭된 승전으로 신속한 점령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장기화되면서 강력한 전시체제가 요구되었다. 이에 1940년 제2차 고노에 내각에 의해 신속한 의결을 위한 독재기구인 大政翼贊會가 성립되고 소위 新體制運動을 추진하게 된다. 이는 전쟁승리를 위한 더욱 전면적이고 강력한 파시즘 독재체제의 구축을 의미하는데 경제적으로 모든 자본을 통제하고,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자유주의를 배격하며 천황제 전체주의를 중심사상으로 내세웠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전장에서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동남아로의 군사진출과 동시에 미국령 진주만을 공습함으로써 전장의 규모와 대상은 중국에서 아시아 전체로, 나아가 영미를 포함한 서구열강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중일전쟁기의 동아신질서 구상은 동남아를 포함하는 남방권까지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정치경제공동체인 대동아공영권 구상으로 확대, 심화되었고, 이러한 정치적 담론을 배후에서 지탱하고 추진하는 다양한 차원의 하위 담론들이 쏟아져 나왔다.<sup>37)</sup> 동시에 이러한 전장의 확대와 전쟁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 물질, 심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체제가 요구되었는데 문학을 포함한 문화전반 역시 사상전,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쟁 복무에 종속되어갔다. 종군작가 筆部隊의 파견(1938.8), 문예총후운동(1940.8), 일본문예중앙회의 성립과 문단의 일원화(1940.10)에 이어 日本文學報國會(1942.6)가 성립되고 大東亞文學者大會(1942.11; 1943.8)가 개최되었다.

37) 가령 각 식민지에 대한 동일화 전략으로 조선에 대한 內鮮一體, 대만에 대한 臺內融合, 만주국에 대한 五族協和 등이 그것이다.

이 시기 대만에서도 각종 奉公會가 설립되어 개개인의 나이, 성별, 사회적 위치에 따라 알맞은 전쟁역할에 배치되었다. 두 단계를 거치며 진행된 황민화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改姓名, 강제된 국어보급, 생활 습속과 신앙의 일본화, 대만인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동원 등이다.<sup>38)</sup> 이런 가운데 문단 역시 강력한 영향을 받았는데 臺灣文藝家協會와 《文藝臺灣》은 일 년 만에 다시 總督府情報課의 개입으로 改組되어 국책에 호응해 갔고 이와 다른 경향을 추구하면서 창간된 《臺灣文學》 역시 전쟁협력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sup>39)</sup>

이러한 상황 하에서 문단과 문화계에 하달된 것은 한층 더 강력해진 국책에의 협조요구였다. 이전 시기 식민지 대만의 풍물묘사와 사회현실의 반영이란 두 경향으로 나뉘어져 논의되던 외지문학의 개념은 신체제가 건립되면서 이제 신일본문화건설과 동아신문화건설이란 대정익찬회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西川滿은 총독부 기관지 《臺灣時報》에 <신체제하의 외지문화>라는 문장을 기고하고 고도국방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대정익찬회가 성립된 마당에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무상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滿洲國 文話會처럼 일원화된 문화추진기구의 필요성과 문화방면에서 국책에 충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0)</sup> 또 《文藝臺灣》에서는 <신체제와 문화>라는 주제로 龍瑛宗, 나가사키 히로시(長崎浩), 黃得時가 참여한 좌담회를 열어 문학이 어떻게 신체제운동에 호응해야 할지를 논의했다.<sup>41)</sup> 龍瑛宗은 신체제가 정신의 개조를 중시하므로 정신의 모체인 문화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黃得時は 조선과 비교하여 대만의 문화 정도가 낮음을 비판하고 문화를 중시하는 신체제가 건립된 이상 대만의 특수성을 활용한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런 논리에서 그는 “신체제

38) 대만의 황민화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周婉窈, 《海航兮的年代——日本殖民統治末期臺灣史論文集》(臺北: 允晨文化出版, 2002)을 참고.

39) 이 시기의 대만문단 동향에 대해서는 최말순, <결전에서 총궐기로 — 일제 최후기(1943-1945)의 대만문단>, 《지구적 세계문학》 제13호(글누림출판사, 2019), 286-313쪽 참고.

40) <新體制下的外地文化>, 《臺灣時報》 258(1940.12.1.).

41) <新體制與文化>, 《文藝臺灣》 2:1(1941.3.1.).

하의 문화는 오래된 것에서 창조해 낸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여 대만의 역사와 전통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이들 본도인 작가들의 신체제를 이용한 대만문화 구상과는 달리 재대만일본인 長崎浩는 지식인들은 통렬한 자아 반성을 통해 뇌리에 박혀있는 자유주의의 구문화를 배척하고 대정익찬의 첩병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懷疑와 자아의식을 배제하고 비장한 결의로 잃어버린 문화를 되찾자고 주장했다. 서구 근대성을 부정하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체제하 소위 근대초극의 출발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대만일본인들은 신체제 이념을 대만문단에 전파하고 나아가 국책에의 협조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문화와 시국의 관계설정이 문화담론의 주요 내용이 되면서 문화의 정치성, 정치의 문화성이 작품비평의 척도가 되었다. 하마다 하야오(濱田隼雄)는 《陳夫人》<sup>42)</sup>에 대해 대만의 풍물, 풍속, 습관 등을 매우 상세히 묘사하고 본도인의 생활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니 정책수립에 유용할 것이므로 정부 기관에서 이 소설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고<sup>43)</sup> 島田謹二도 내지인이 초기 대만을 정벌하면서 많은 문학을 남긴 데 비해 총력전 이후는 아직 그런 문학이 생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전쟁문학의 창작을 부추겼다.<sup>44)</sup> 이로써 신체제운동이 대만으로 유입된 이후 문학창작에 정치적 목적을 결합시키는 논의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본도인 작가들은 앞서 본대로 한편으로는 시국에 호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력이 확대되는 계기를 이용하여 대만의 지방문화를 확립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1941년 張文環이 주도한 《臺灣文學》의 창간인데 《文藝臺灣》의 시 위주의 낭만적 경향과 달리 소설 위주의 현실적 기초를 유지했다.<sup>45)</sup> 동인으로 참여한 呂赫若은 잡지 창간을 기

42) 庄司總一의 장편소설로 전쟁시기 內臺通婚을 소재로 하여 일본여성 安子가 대만자산계급 지식인인 陳清文과 결혼 후 경험하게 되는 여러 일을 그린 것이다.

43) <關於庄司總一的《陳夫人》>, 《臺灣時報》 257(1941.5.1.).

44) <取材自領臺戰役의戰爭文學>, 《文藝臺灣》 2:6(1941.9.20.).

45) 두 잡지의 비교연구는 王昭文, <臺灣戰時的文學社群——《文藝臺灣》與《臺灣文學》>, 《臺灣風物》 40:4(1990.12), 69-103쪽 참고.

빠하며 취미 본위의 문학, 대만의 풍속습관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張文環의 《山茶花》와 같이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생활에서 우리나라오는 문학을 창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6)</sup> 黃得時는 대동아공영권확립과 고도국방국가건설의 과제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문화기구의 새로운 재편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건설적, 생산적, 국민적, 지방 분산적 문화를 건립해야 하는데 문화의 지방 분산이란 지방문화의 확립을 의미하며 지방문화란 그 지방의 향토에 적합한 문화로 이 특유한 문화를 활용하여 대만문단의 새로운 건설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독부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인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민협작을 통해 독자적인 대만문단을 건설해야 하므로 풍속부터 시작해 역사, 지리, 정치, 경제, 교통, 산업, 위생, 교육 등 대만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농민생활, 米糖相剋<sup>47)</sup> 등을 문학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sup>48)</sup> 문학의 국책역할을 중시하는 신체제하 시대적 분위기를 활용해서 독자적인 대만문단을 건설하자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국책에 호응하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기는 하나 중일전쟁기의 대만문단 재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張星建 역시 皇民奉公會의 실천 강목에 문예의 제고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대만은 예로부터 여러 지역의 문화가 들어와 융합된 곳이며 남방의 중심이므로 남방공영권 기지의 역할에 맞는 특유의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9)</sup> 그가 말하는 특유의 문화란 대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중일 양국문학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번역인데 이는 본도 작가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sup>50)</sup> 王碧蕉도 동아공영권 확립, 세계 신질서 건설을 위한 전면전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문화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46) <我見我思>, 《臺灣文學》 1:1(1941.5.27.).

47) 米糖相剋은 일제시기 대만의 쌀농사와 사탕수수 농사를 둘러싸고 일어난 농작지 경쟁 현상을 말한다. 그 이유는 농경지 자연조건이나 농민의 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수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작품목과 농산물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48) <臺灣文壇建設論>, 《臺灣文學》 1:2(1941.9.1.).

49) <書籍與文化>, 《臺灣文學》 1:2(1941.9.1.).

50) <論翻譯文學>, 《臺灣文學》 2:1(1942.2.1.). 당시 黃得時가 《水滸傳》을 西川滿이 《西遊記》를 吉川英治가 《三國志演義》를 井上紅梅가 《金瓶梅》를 번역하는 등 중국의 4대 고수가 모두 일본어로 번역되었고 대만작가들에게 일본문학작품의 중국어 번역도 요구하였다.

하며 중앙 집중보다는 지방 분산주의가 더 유효하므로 대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굴하고 그 특질을 문학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sup>51)</sup> 이렇듯 본도인 작가들은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신체제 담론 공간을 이용하여 여전히 문단 재건과 대만문화의 향상을 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동아전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문화의 전쟁동원에 대한 언급이 갈수록 많아지고 전쟁의 추이에 따라 강도를 높여갔다. 1942년 벽두에 《臺灣藝術》잡지사가 마련한 <대만예술계에 거는 기대> 기획<sup>52)</sup>에서는 문화의 정치적 효용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특히 재대만일본인들에 의해 文學報國이 정식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전쟁기 《民俗臺灣》잡지<sup>53)</sup>를 주도한 민속학자 가나세키 다케오(金關丈夫)와 이케다 토시오(池田敏雄)는 각각 문학을 통해 남경의 국민정부 문학자와 상호교류하면서 동아공영을 위한 문학 보국의 길로 나가야 하며, 농촌생산현장을 반영한 진정한 대중소설을 생산하자고 했다. 또한 西川滿은 형식주의 예술보다는 지방 특색을 확보하여 황국신민으로서 신일본문화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여 기존의 남방문학 주장을 시국의 필요성에 수렴시켰다. 여기서 나온 문학보국, 생산문학, 신일본문화 건설 등의 주장은 앞서 본 《文藝臺灣》의 <신체제와 문화> 좌담회에서 나온 반서구 근대성과 함께 대동아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반복되었다. 이러한 공세에 대한 대응 성격 을 갖는 《臺灣文學》 주최의 <중부지방문제간담

51) <臺灣文學考>, 《臺灣文學》 2:1(1942.2.1.).

52) <對臺灣藝術界的期許>, 《臺灣藝術》 3:1(1942.1.1.).

53) 전쟁 시기인 1941년 창간된 《民俗臺灣》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역할 등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학계에 대두되어 있다. 소실되어 가는 대만민속과 각 지방의 민간생활을 기록, 정리, 보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이 시기 대만민속의 정리는 대동아민속학의 건립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결국 일본이 전쟁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대동아공영권 이념에 복무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이 시기 적지 않은 대만의 지식인들이 이 잡지에 참여하여 대만의 전통과 민속, 각 지방의 역사 문헌과 대중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民俗臺灣》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王昭文, <日治末期臺灣의知識社群(1940-1945)——《文藝臺灣》、《臺灣文學》、《民俗臺灣》三雜誌의歷史研究>(國立清華大學歷史研究所 碩士論文, 1991); 張育薰, <日治後期臺灣民俗書寫之文化語境研究>(國立清華大學臺灣文學研究所 碩士論文, 2012); 張修愷, <1940년대臺灣鄉土意識의底端——從鄉土文學論爭到《民俗臺灣》的討論>, 《臺灣國際研究季刊》 10:3(2014年 秋季號), 45-74쪽 등 참고.

회>54)에서 吳天賞, 張星建, 楊逵, 巫永福 등 본도인 작가들은 시국으로 인해 정치의 문학 개입이 이루어지고 문화예술이 총력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만큼 명랑하고 건강한 자세로 건설적인 문화를 창조해 내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견만을 제시하고 대만문화의 고유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1937년 전후 전쟁시국 하 지방문화의 진흥이란 언술 공간을 활용해 본도인 작가들이 내건 대만의 역사와 현실에 입각한 문화의 건립과 향상 주장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영미 제국주의로부터 10억 동양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성전이라는 대동아 전쟁의 의미가 강조될수록 문화 담론은 반서구사상, 일본정신, 전쟁수행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주입하는 내용으로 기울어졌다. 문화보국, 문화보국에 입각한 전쟁문학/문화의 창조가 그 목적이 되면서 서구 근대성의 폐해를 일소하고 일본 고유의 전통과 정신을 재인식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반서구 사상은 신체제운동의 주요이념인 전체주의와 일본주의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 서구근대성을 추동한 자본주의, 자본주의부터 파생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이념을 분쇄하고 멸사봉공, 즉 개인을 버리고 천황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자는 과격한 주장으로까지 나아갔으며 서구근대성을 몰아낸 자리에 일본 고유의 역사와 전통, 사상과 정신을 채워 넣는 일본중심주의가 자리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방/외지의 문학/문화 논의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내 생각에 이번 전쟁의 특색은 문화의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화의 건설을 촉진하는 것을 국책의 하나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近衛 전 수상은 대정익찬회에서 말한 바도 그렇다. 고도국방국가체제의 건설은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서 과거의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일억 인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체제 아래서만 가능하다. 이 문화체제의 목적은 국제 정서에 기초한 雄渾, 高雅, 明朗하며 과학적인 신일본문화를 건설하여 안으로는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밖으로는 대동아문화의 발양을 위해 노력하는 데 있다...오늘 마땅히 건설해야 하는 신일본문화는 신체제 아래의 신문화이며 이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일본식의 문화이다. 이점은 당연하게도 이전의 자본주의문화를 부정하는 것이다.

원래 자본주의문화는 그 사상이 바로 개인주의, 자유주의이므로 국가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국민 생활이 날로 생기를 잃었고 일부분 자산가들의 향락문화만이 번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본문화의 유럽화가 초래한 향락문화가 오늘날 만연하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가 생산력을 촉진하는 기능을 상실했다면 전쟁만이 목표가 되어 거국일치로 생산에 매진해야 하는 지금 자본주의문화는 당연히 부정되어야만 한다.<sup>55)</sup>

서구문화와 사상에 대한 부정과 비판을 거쳐 국채 정신에 기반한 새로운 일본문화의 건설주장은 대동아전쟁을 지탱하는 이데올로기로 1942년 내내 언급되었고 이듬해 총독부 문학상을 둘러싸고 작품비평으로까지 확산되어 糞寫實主義論爭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논쟁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기존 연구가 많지만<sup>56)</sup> 본도인 작가의 작품에 일본전통과 미학이 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만 현실을 반영한 것이 서구 사실주의의 아류라는 비판에서 발생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오늘날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작가 중의 한 명이 泉鏡花일 것이다. 비록 그의 작품이 황당무계한 면도 없지 않으나 문장의 화려함, 어휘의 풍부함, 구조의 완벽함에서 일본 문학의 전통을 활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소위 문학의 ‘藝’의 위대함을 홀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현재 대만문학의 주류라고 여겨져 온 개똥사실주의는 전부 다 메이지 이후 일본으로 전파되어 온 구미문학의 수법으로 적어도 벚꽃을 사랑하는 우리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공명을 갖지 못한다. 그것은 값싼 인도주의 나부랭이며 조악하고 속된 것으로 비판정신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일말의 일본전통도 없다...일본의 문학자로서 설마 구미인들이 써 내지 못하는 일본정신을 가진 작품을 쓸 수 없겠는가? 문학세계에서 구미의 침입에 저항하는 것이 내가 泉鏡花를 예로 드는 가장 큰 이유이다.<sup>57)</sup>

‘優美’는 바로 일본문학의 전통이다. 목불인견의 더럽고, 메스껍고 잔혹한 제재를 써놓고 득의양양하는 꼴은 자연주의의 해독 때문이다. 정말 눈을 뜨고 봐 줄 수가 없다. 자연주의의 끝도 없는 진흙더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아 말도 말자. 어

55) 皇民奉公會臺北州支部娛樂指導班, <關於在臺北州下青年演劇挺身隊的根本理念>, 《臺灣文學》 2:3(1942.7.11.).

56) 관련자료는 <http://nrch.culture.tw/twpedia.aspx?id=2194> 참고.

57) 西川滿, <文藝時評>, 《文藝臺灣》 6:1(1943.5.1.).

졌든 19세기의 자연주의를 숭상하는데 머물러 있는 대만 작가가 얼마나 많은가?<sup>58)</sup>

이러한 도를 넘은 비판에 문학상 수상자였던 張文環은 자신의 문학수업 경험에 비추어 의견을 표출했다. 그는 본도작가에게 일본 고전을 통해 황도정신을 배우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인간성과 인정미를 가진 작품만이 진정한 문학이라는 의견으로 일본정신의 강요를 에둘러 비판했다.<sup>59)</sup> 물론 이러한 의견은 濱田隼雄에 의해 곧바로 비판받았고<sup>60)</sup> 결전으로 치달으면서 더 이상의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들이 말하는 일본전통과 정신은 태평양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인데 기존의 지방/외지 문학/문화에서 중시하던 지방특색과는 완전히 상반된 일본중심주의 사고이다.

(대만문예가협회의 改組로 새로 출발하는 이때) 원래 지방적 존재에 불과했던 본도의 문학이 지금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 일본의 한 성원으로 심지어 이웃 나라와 왕래하는 지위로 도약했다. 우리는 본도의 문학운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동아문학자대회에 대만 대표를 과건하는 것은 대만이 외지라는 특수함을 버리고 과거의 자아에서 해방되어 일본문학의 일익이 되는 정신의 길로 매진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할 때만이 대만문학계는 문예 부흥을 이룰 수 있고 신문예가 탄생하는 여명의 시각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는 오로지 대만문예가의 분기정신만이 가능케 하는 일이다.<sup>61)</sup>

전쟁 시국의 문학/문화 동원에서 관방의 입장을 대변하고 관철시켜 온 야노 호진(矢野峰人)의 이 말은 지방색과 향토성을 통해서 중국과의 문화교류 역할을 요구받던 대만문화와 문학이 대동아전쟁시기 전면적으로 일본성으로 수렴되었으며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임무만을 요구받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본정신이란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네 명의 작가들이 이구동성으

58) 西川滿, <文藝時評>, 《文藝臺灣》 6:2(1943.6.1.).

59) <臺灣文學雜感>, 《臺灣公論》 8:5(1943.5.1.); <我的文學心思>, 《臺灣時報》 285 (1943.9.15.).

60) <文藝時評>, 《文藝臺灣》 6:3(1943.7.1.).

61) 矢野峰人, <臺灣文學的黎明>, 《文藝臺灣》 5:3(1942.12.25.).

로 말하고 있는바 일본의 대자연이 배양해 낸 일본의 전통 및 이 전통이 제련해 낸 美, 道義, 道德 및 서구 이성주의와는 다른 직관력 등이다.

영미문화가 줄곧 유지해온 주지주의, 합리주의, 유물주의와 비교해 볼 때 아시아의 문화는 ‘全人格의 直觀主義’에 기초한 ‘한 번 만에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다. 진인격의 직관은 사물의 본질을 보는 힘으로 예술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아시아문화의 본체는 예술이다.<sup>62)</sup>

이번 대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하게도 직관력을 가진 대동아문학자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이다. 원래 직관의 민족인 동양은 오랫동안 영미의 침략을 받아 직관력을 상실하고 합리주의, 이성주의 사상을 주입받아 왔는데 이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더 많은 문학의 수양을 거쳐야 한다.<sup>63)</sup>

西川滿, 濱田隼雄과 함께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본도인 작가인 龍瑛宗은 “근대의 종언이란 과학문화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파탄의 지경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번 전쟁은 과학문화를 초월하여 동양 본래의 도의문화를 건설하기 위함에 다름아니다. 동양문화는 원래 도의문화였는데 근세의 과학문화의 박해를 받아 깊은 혼수상태에 빠져 폐허가 되어 없어질 지경에 처한 것이다. 이때 동아에서 유일하게 문화의 보존자인 우리 일본이 동아부흥을 목표로 영미의 과학문화를 격퇴하여 동아 본래의 면모를 건립하고자 한다.”<sup>64)</sup> 고 하여 전쟁 시국에 부합되면서도 도의문화를 일본에 국한시키지 않고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동양문화의 범위에서 언급했고 八紘一宇 역시 중국의 四海皆兄弟의 정신으로 해석했다. 張文環 역시 후지산을 보며 느끼는 감동에는 동의했으나 팔괘일우의 정신을 중국의 拜天思想과 연결시킴으로써 일본중심주의를 전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sup>65)</sup> 이에 비해 일본인 작가들은 일본정신의 유무를 일어의 운용능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배타성

62) 濱田隼雄, <大會的印象>, 《文藝臺灣》 5:3(1942.12.25.).

63) 西川滿, <自文學者大會歸來>, 《臺灣文學》 3:1(1943.1.31.).

64) <道義文化的優勢>, 《臺灣文學》 3:1(1943.1.31.).

65) <自內地歸來>, 《臺灣文學》 3:1(1943.1.31.).

을 드러내면서<sup>66)</sup> 특히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귀국한 후 이광수, 유진오 등 조선 작가를 들어 본도인 작가들의 일어 능력을 비판했다.

만약 본도인이 낭독을 통해 일본의 아름답고 정통한 국어를 배울 수 있다면 대만의 진정한 국어보급, 아니 일본정신의 함양에 얼마나 많은 작용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대회에서 얻은 수확은 많지만 그중 조선인에게서 매우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그들의 수양의 깊이나 철학적인 사유뿐 아니라 아름답고 정확하며 유창한 일본어에 정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67)</sup>

일어의 사용능력을 포함하는 소위 일본정신의 유무는 황민여부를 가늠하는 척도였는데 대동아전쟁이후 문화 담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되어 日本精神總動員 구호를 외우게 하거나 日本精神振興週같은 행사를 통해 실제로 민중에게 강요되었다. 평론가 시부야 세이치(澁谷精一)은 “일본정신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본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가령 清明心이라 함은 명랑하고 낙천적이며, 정직하고 용감하며, 명예를 존경하고 염치를 아는 정신이다. 삼국 조약 체결 시의 일본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各得其所, 各安其堵가 있는데 이것이 일본정신의 眞髓이다. 일체의 私事를 망각하고 천황 옆에서 웃으며 죽는 황군 용사의 영웅 행위가 바로 이 일본정신이며 이러한 壯烈한 정신은 오직 일본에만 있는 것이다.”<sup>68)</sup>라고 하여 일본정신의 강조는 결국 전쟁 수행을 위한 동원의 논리였음을 알 수 있다.

대동아전쟁은 동시에 두 방면의 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건설전은 바로 이렇게 중요하고도 긴급한 문제이다. 대동아전쟁이 장기전으로 백년전쟁이라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개국 이래 미증유의 대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 문화를 희생시키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일본민족전통이 키워온 우리의 견고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무기로 잘 활용해야 한다. 우리 일본은 대동아

66) <臺南地方文學座談會>, 《文藝臺灣》 5:5(1943.3.1.).

67) 西川滿, <自文學者大會歸來>, 《臺灣文學》 3:1(1943.1.31.).

68) <日本精神及其他>, 《臺灣文學》 3:2(1943.4.28.).

의 지도자로서 마땅히 대동아를 침략한 영미가 가져온 자유주의, 이기주의와 같은 천박한 사상과 문화를 일소하고 대동아권 내의 오래된 지역 혹은 신흥의 토지에서 우리나라의 개국 정신을 기초로 한 웅대한 문화를 건설하여야 한다. ...진정한 일본 문학의 일원이 되기 위해 마땅히 뼈 속으로부터 외지문학의 특수성을 제거하고 동시에 일부분의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성의 문학, 형식에 치중하는 약점, 모양만 내는 창작 태도를 버리고 엄숙하고 집요한 정신을 기초로 맹렬한 작가 혼을 불살라야 한다. ...현재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문학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본민족의 격렬한 감동과 결합시켜야 하며 시국과 관련 없는 문학은 일말의 가치나 하등의 의미도 없다. ....감히 말하건대 건전한 본도문학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엄격한 반성의 회초리가 필요하며 우리가 일본민족으로 태어난 것을 행운이라고 느낄 때만이 일본민족 본래의 雄渾한 정신을 체득한 일본 문학을 창작할 수 있다. ...대만을 사랑하는 문학인으로서 요구하고자 한다. 문학에 대한 영원한 동경이나 향수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탄식을 부정하고 국어의 아름다움을 체득하여 국어의 아름다움을 선양하고 시대의 눈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자.<sup>69)</sup>

위에서 보듯이 오로지 전쟁 수행에 유용한 문화와 문학의 건설만이 요구되고 있는데 總督府情報課, 臺灣文學奉公會, 日本文學報國會臺灣支部 등의 성립과 이들 관망에 의한 臺灣文藝家協會의 改組에 이어 皇民奉公會에 文化部가 설치되자 문학/문화의 전쟁협조만이 강조되었다. 또한 작품 평론을 둘러싸고 일어난 《臺灣文學》, 《文藝臺灣》, 《臺灣公論》, 《臺灣藝術》 등 당시 잡지의 불협화음을 제거하기 위해 문단의 大團結과 문화인의 大和睦을 요구했는데 이는 사실상 본도인 작가들을 향한 경고였다.

대만의 문학운동은 건설하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과거를 회고해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 있다. 문학운동이 서로 어떠한 연계를 가지지 못하고 공동의 목표도 없이 각 단체들이 통일되지 않은 채로 각자 자아표현에 만족하면서 본도문화를 위한 진일보한 노력이나 문예 보국의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하나의 사회세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사회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해 매우 유감이다. 만약 각 단체들이 동심협력하여 연합행사를 개최한다면 문학의 사회적 침투력이 지금보다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sup>70)</sup>

69) 田中保男, <我的看法——爲了臺灣的文學>, 《臺灣公論》 8:5(1943.5.1.).

70) 矢野峰人, <臺灣的文學運動>, 《臺灣時報》 277(1943.1.1.).

강철과 같은 의지와 기율이 있어야만 총알 보국의 단체가 될 수 있다. 겨우 함께 조직을 이루어 내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혼란을 일으키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위엄을 갖추고 힘이 생기겠는가? 모든 조직원들이 진정으로 小我를 버렸는가? 小我가 바로 황민문화운동의 암이라는 것을 자각해서 이를 버려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전장에서 죽어간 용사들의 영혼을 대할 수 있겠는가?<sup>71)</sup>

이러한 요구가 지속되다 결국 1943년 중반 이후 결전기에 이르면 강제로 문학결사의 해체와 잡지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단일전선이 형성되며 오로지 증산의 고취만이 문학의 내용과 목적이 된다. 이 시기에 이르면 문학과 문화논의의 모든 자율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전쟁에 발휘될 실질적 효과의 유무만이 논의되었는데 바로 증산보국의 문화담론이었다.

전력의 증강을 위해 반드시 증산이 필요하며 증산만이 전쟁의 최후 결과를 결정한다. 따라서 전체 국력을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문학이 어떻게 증산에 공헌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문학 자체는 못 하나도 만들 수 없다. 어떤 이는 문학이 국가 전체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일본고전 중의 至誠과 熱情을 말하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문학의 이런 힘을 어떤 형식으로 증산과 관련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문학의 생존방법을 결정하는 유력한 길이다. 그 방법은 오로지 산업전사들에게 활력을 주어 다음날에도 쉬지 않고 다시 노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작품의 창작일 것이다.<sup>72)</sup>

대단합과 총력기의 함성 아래서 결국 이러한 작품의 창작을 위해 작가들은 증산현장으로 파견되어 갔고 전쟁에 복무하는 목적문학을 생산해야만 했다. 그 결과물은 皇民文學奉公會가 발간한 일원화된 잡지 《臺灣文藝》(1944) 등을 통해 발표되었고 《決戰臺灣小說集》(1944-1945)으로 발간되었다. 이하에 전쟁기 대만의 문화담론은 전쟁을 지탱하는 배후이데올로기로 또 직접적인 전쟁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71) 濱田隼雄, <文藝時評>, 《文藝臺灣》6:3(1943.7.1.).

72) 瀧田貞治, <增産與文學>, 《臺灣公論》9:3(1944.3.1.).

#### 4. 대만문인의 대응과 사고

이상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1937년에서 1945년까지 신문과 문학 잡지 등 대만의 언론매체에서 언급된 문화담론은 1941년 말 태평양전쟁의 발발을 전후하여 두 단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는데, 중일전쟁기로 칭한 앞 시기는 대만문화가 중일 양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담당하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우선 대만의 문학과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생겨났다. 중국에 대한 전면전의 시작과 함께 한문의 사용이 금지되어 본도인의 대만 문단은 침체되고 1939년 西川滿, 島田謹二 등 재대만일본인이 주도하는 전시 문단이 성립되면서 이전부터 이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지방문학으로서의 남방 문학과 외지문학 논의가 문단의 주류경향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본내지와는 다른 외지대만의 지방색채와 향토성을 반영한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연구하자는 것이었다. 마침 남진론이 제기된 시점이어서 대만 특색의 문학과 문화건립 주장은 중일전쟁기 대만문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남방진출의 거점인 대만지역과 대만문화를 중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중일전쟁이 예정보다 장기화되면서 이들이 주도한 강렬한 색채와 풍부한 감각적 이미지의 남방문학은 대만의 사회현실과 유리되어 정확한 인식을 가져오지 못하므로 대만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문학과 문화의 방향이 요구되었다. 이로써 지방문단의 향토성 내용은 낭만적 이국정조에서 객관현실의 묘사로 선회했다. 형식미에 치중하는 西川滿의 시작을 취미성 문학으로 비판하면서 대만인이 실제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그려내는 것이 대만문학의 본령이라 생각한 張文環, 呂赫若 등 본도인 작가들은 외지문단의 진흥이라는 전쟁시국을 이용해 침체 된 대만문단을 다시 일으키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이들에 동조한 재대만일본인 작가와 이국정조에서 선회한 문인들도 대만 현실을 직시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했으나 본도인 작가들과는 다르게 주로 내지

인들의 대만 생활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 단계는 1940년 말부터 시작된 신체제운동의 여파와 이 운동의 목적인 태평양전쟁(대동아전쟁)이 가져온 문화의 동원담론이다. 서구제국의 식민지인 동남아와 미국령 진주만의 공습은 직접적으로 영미를 대상으로 한 총력전 체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서구대항논리인 근대의 부정과 아시아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단결논리로 동양문화론이 제기되었다. 서구근대의 부정은 자본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을 기조로 하여 개인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멸사봉공의 강조로 이어졌고 서구 이성주의에 기초한 비판적 현실 인식도 부정되었다. 따라서 문학을 통해 대만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문화의 향상을 꾀하고자 했던 본도인 작가들의 담론공간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고 그들의 소설은 서구 사실주의의 아류, 자연주의의 여독으로 치부되었다.

동시에 기존 식민지와 새로운 점령지를 아우르는 동양문화론을 제기하는데 서구근대성과는 다른 특질로 동양의 도의문화, 직관력, 포용성 등을 들었으며 이에 입각한 대동아문화의 창조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곧 일본정신과 전통, 역사, 언어에서 발원했고 지금도 일본만이 구비하고 있는 특징이므로 일본을 중심으로 천황 아래 모여들어 성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八紘一宇의 논리로 수렴되었다. 동양문화론은 사실 일본중심주의 문화론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일본 역사와 고전의 학습을 통한 皇道精神의 습득이 본도인 작가들에게 요구되었고 그들 작품 속의 일본어는 정통성이 없고 조악하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이에 대해 張文環과 龍瑛宗은 표현수단인 문자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며 나아가 본도인 작가들의 언어 구사가 오히려 일어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일본인들의 배타적인 시각을 문제 삼기도 했다. 또한 동양 제민족의 전통과 역사에 기초한 대동아문화의 창조가 진정한 팔괘일우 이념의 실천이라는 논조로 맞섰다.

그러나 1942년 중반기부터 전황이 불리해지고 관방의 문화 동원이 제도적으로 강화되면서 본도인 작가들의 원론적 대응과 우회적 저항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졌다. 특히 1942년말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 이후 일본중심주의

문화담론은 대만문단과 논단을 휩쓸었고 1943년 말 臺灣決戰文學會議에서 문학결사의 해체와 문학잡지의 통폐합이 일본인들의 주도하에 결정되어 전쟁협력의 역할, 그중에서도 증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하는 것만이 문학/문화담론의 유일한 내용이 되었다. 이로써 전쟁기 관방과 그에 동조하는 일본인 문화인들이 주도한 대만문화담론은 철저하게 전쟁 수행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동원수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쟁국면을 전유하여 대만문단과 문화건설을 시도한 본도인 작가들의 대항공간은 점차 강화되는 정치 권력의 동원 논리에 포섭되어 갔다고 하겠다.

그렇기는 하나 엄혹한 전쟁과 동원국면에서도 국가주도의 문화담론에 대응하는 본도인 작가들의 의견과 주장을 보면 1920-30년대의 문화담론과 일정 정도 호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바 1920년대의 문화담론은 국가 간 약육강식의 무력충돌을 야기한 물질적, 기계적 서구근대문명의 비판에서 출발하여 이성적, 평화적, 정신적 문화를 지향했고 이를 통해 식민통치가 초래한 피압박상태를 벗어나고자 했다. 이는 정치적 목적을 띤 문화계몽운동의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근대문학은 그 실천의 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식민당국의 언론통제와 제한, 타율적 식민지사회가 갖는 발전의 제약과 독자 대중층의 미성숙 등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문화담론의 실천은 여의치 못했다. 게다가 1920년대 말의 경제대공황과 자본주의 위기설 이후 경제적 타격을 식민지 수탈을 통해 만회하려는 식민당국의 강화된 지배와 이러한 기형적 자본주의 근대화의 일정한 진전이 가져온 민족전통의 소실상황에 직면해 대만의 지식인들은 민간문학의 채집과 정리를 통해 선인들의 생활과 정신면모를 보존하고자 했다. 따라서 1930년대의 민간문화 지향은 일본주도의 자본주의 근대화에 맞서는 저항담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의 문자화, 민간가요와 전설의 채집과 정리 등이었다.

이러한 1920, 30년대의 문화담론은 중일전쟁기 외지문단과 지방문화의 진흥, 풍부한 향토성의 남방문학론이 운위될 때 어떤 식으로든 본도인 작가들에게 자극을 주었을 것이다. 우선 외지문단 건설주장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구축

하러 노력해왔던 본도문단 재건에 대한 기대를 가져왔을 것이며 향토성과 지방적 소재의 채용은 민간문학과 문화의 채집과 정리 경험을 상기시켰을 것이다. 때문에 張文環 등 본도인 작가들은 전쟁수요로 인한 지방문학열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공간을 활용해 대만문단의 재건을 주장했고 그 방향은 이국정조의 유희적 경향이 아니라 식민지의 낙후된 생활과 문화를 향상시킬 목적의 비판적 현실주의 문학의 추구였다. 대동아전쟁기 서구 근대성의 부정과 일본중심주의로 귀결된 동양문화담론에 대해서는 강력한 총력전의 요구로 인해 저항의 공간이 압축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四海一家, 拜天思想같은 접수 가능한 논리를 내세워 아시아 여러 민족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대동아문화를 건설하고자 했다. 본문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본도 지식인들이 《民俗臺灣》에 참여하여 대만의 역사 문헌과 민간생활의 정리에 종사한 것이 이를 입증해 준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과 노력은 결전시기 오로지 증산의 도구로 문화담론이 고정되면서 더 이상의 담론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본문은 전쟁기 대만 언론매체의 문화담론을 대상으로 식민정치권력의 문화동원논리와 지식인에 대한 통제양상,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대만문인들의 사고를 전시기 문화담론과 관련시켜 개략적으로 고찰해 본 것이다.

#### < 參考文獻 >

- 《臺灣時報》，臺灣時報社，1919創刊。  
 《臺灣公論》，臺灣公論社，1936創刊。  
 《文藝臺灣》，臺灣文藝家協會，1940創刊。  
 《臺灣藝術》，臺灣藝術社，1940創刊。  
 《臺灣文學》，啓文社，1941創刊。  
 《臺灣文藝》，臺灣文學奉公會，1944創刊。  
 최말순, 《식민과 냉전하의 대만문학》，서울: 글누림출판사, 2019.

- 崔末順, 《海島與半島——日據臺韓文學比較》, 臺北: 聯經, 2013.
- 黃美娥, 《雙層現代性鏡像》, 臺北: 麥田出版社, 2004.
- 黃英哲 編, 《日治時期台灣文藝評論集》二—四冊, 臺南: 國家台灣文學館籌備處, 2006.
- 柳書琴, 《荊棘之道——臺灣旅日青年的文學活動與文化抗爭》, 臺北: 聯經, 2009.
- 橋本恭子, 吳佩珍主編, <在臺日本人的鄉土主義——島田謹二與西川滿的理念>, 《中心到邊陲的重軌與分軌(中)》, 臺北: 臺大出版中心, 2012.
- 周婉窈, 《海航兮的年代——日本殖民統治末期臺灣史論文集》, 臺北: 允晨文化出版, 2002.
- 崔末順, <現代性與臺灣文學的發展(1920-1949)>, 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系 博士論文, 2004.
- 王美惠, <1930年代台灣新文學作家的民間文學理念與實踐——以“臺灣民間文學集”為考察中心>, 國立成功大學歷史研究所 博士論文, 2008.
- 王昭文, <日治末期臺灣的知識社群(1940-1945)——“文藝臺灣”、“臺灣文學”、“民俗臺灣”三雜誌的歷史研究>, 國立清華大學歷史研究所 碩士論文, 1991.
- 張育薰, <日治後期臺灣民俗書寫之文化語境研究>, 國立清華大學臺灣文學研究所 碩士論文, 2012.
- 고야노 노부쿠니, <일본지식인과 중국문제>, 《일본 비평》 제6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2.
- 최말순, <결전에서 총궐기로 — 일제 최후기(1943-1945)의 대만문단>, 《지구적 세계문학》 제13호, 글누림출판사, 2019.
- 崔末順, <“五四”與臺灣新文學以及“朝鮮”——從《臺灣民報》兩篇小說談起>, 《한중언어문화연구》 제57호, 한국중국어문화연구회, 2020.
- , <新文學的啓蒙內容及其結構: 五四與臺灣新文學運動中的文學論比較>, 《五四精神在東亞的發展與變遷暨跨文化研究》, 花蓮: 慈濟大學東方語文學系, 2017.
- 王昭文, <臺灣戰時的文學社群——《文藝臺灣》與《臺灣文學》>, 《臺灣風物》 40, 1990.
- 張修慎, <1940年代臺灣鄉土意識的底端——從鄉土文學論爭到《民俗臺灣》的討論>, 《臺灣國際研究季刊》 10, 2014年 秋季號.

< Abstract >

From 'Local Color' to 'Japanese Spirit' - Theory of Cultural  
Mobilization in Taiwan during the War (1937-1945)

Choi, Malsoon

The paper aims at the cultural discourse formed in colonial Taiwan from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to the defeat of Japan in 1945, examining how political power controls, regulates, and mobilizes the entire cultural sector, including literature, for specific purposes. The main object of the research was culture-related articles published in media and literary magazines at the time, which traces how cultural discourses were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progression of wars and times. Therefore, it is analyzed and discussed that how Taiwanese culture plays the role of a bridge between China and Japan during the Sino-Japanese War (1937), foreign literary circle and the theory of local culture revitalization, the rural issues of Taiwanese literature, the period of the Pacific War (1941) included Eastern cultural discourses that denied Western modernity and Japan-centrism, and the period of decisive battle (1943) increased production literary theory, etc. The paper further explores how these cultural discourses are mentioned, and what is the process and appearance of their construction, in order to examine the logic of cultural mobilization and the ideological control towards Taiwanese intellectuals of the colonial political power, as well as the responding acts and thoughts of Taiwanese intellectuals.

Key Words: War period (1937-1945), Culture mobilization logic, Taiwanese Cultural Discourse, Sino-Japanese bridge role theory, Local Culture Promotion Theory, Locality of Taiwanese Literature

투 고 일: 2021. 04. 28.

심 사 일: 2021. 05. 12. - 2021. 05. 27.

계재확정일: 2021. 05. 27.